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



신경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khee@sdi.re.kr

I.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1.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현황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용어 사용 및 법적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제3섹터 조직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있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2009)
- 서울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를 위한 창업지원 방안(2009) 등

-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9개이며, 1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 중에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기업육성조례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서울시(자치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서는 시장(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¹⁾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요건²⁾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즉,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를 별도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자격을 부여한 사업체라 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적용과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체라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제도적 적용과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업체라 할 수 있음.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 ⑤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⑥제9조에 다른 정관이나 규약을 갖춘 것, ⑦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2)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및 지정 현황

- 서울시는 2010년 4차에 걸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지정 사업을 추진하였음. 4차 지정은 2011년 1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3차까지 총 724개 사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하였고, 이중 34.8%인 252개 사업체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음.
- 신청사업체 724개의 분야별 현황은 문화교육 분야가 229개(31.5%)로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223개(30.8%), 보건보육 분야가 130개(18.0%), 기타 분야가 142개(19.6%)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42개 사업체³⁾의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95개(39.3%)로 가장 많으며, 문화교육 분야가 73개(30.2%), 보건보육 분야가 41개(16.9%), 기타 분야가 33개(13.6%)임.

〈표 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현황
(단위 : 개, %)

차수	신청 사업체 수	지정 사업체 수	지정율
1차	284	110	38.7
2차	219	85	38.8
3차	221	57	25.8
합계	724	252	34.8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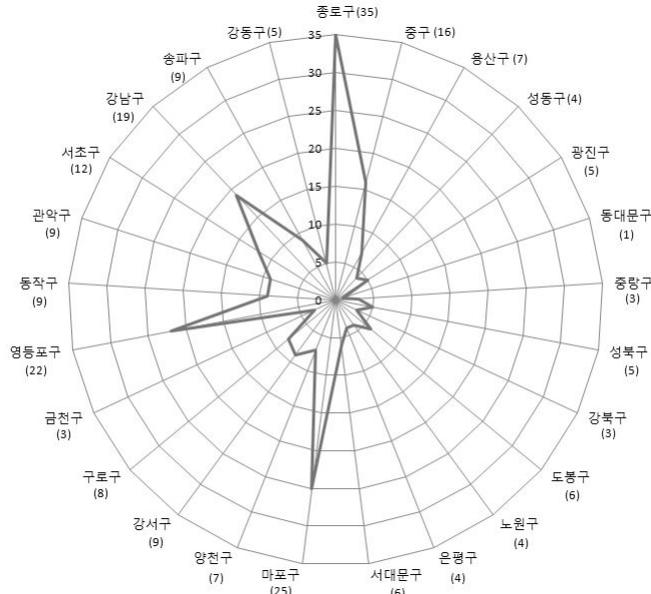
〈표 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분야별 신청 및 지정 현황
(단위 : 개(%), %)

분야	신청 사업체 수	지정 사업체 수	지정율
사회복지	223 (30.8)	95 (39.3)	42.6
보건보육	130 (18.0)	41 (16.9)	31.5
문화교육	229 (31.5)	73 (30.2)	31.9
기타	142 (19.6)	33 (13.6)	23.2
합계	724 (100.0)	242 (100.0)	33.4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사업체의 소재지 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11.3%로 가장 많으며, 마포구 9.6%,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9.4%, 영등포구 9.2%의 순임. 지정 사업체 소재지는 종로구 14.8% 마포구 10.6%, 영등포구 9.3%, 강남구 8.1%, 중구 6.8%, 서초구 5.1%의 순임([그림 1]).

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52개 사업체 중에서 중도탈락되거나 신청서 자료가 누락된 10개 사업체를 제외한 242개 사업체를 분석하였음.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그림 1] 자치구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체 수

- 신청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현황을 보면 상법상 회사가 293개(40.5%)로 가장 많으며, 이어 민법상 법인 271개(37.4%), 비영리단체 95개(13.1%), 사회복지법인 60개(8.3%) 순임. 지정사업체의 경우 민법상 법인이 93개(38.4%)로 가장 많으며, 상법상 회사 78개(32.2%), 비영리단체 37개(15.3%), 사회복지법인 33개(13.6%)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조직형태

(단위 : 개(%), %)

구 분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 체	기 타	합 계
신청 사업체	271 (37.4)	293 (40.5)	60 (8.3)	95 (13.1)	5 (0.7)	724 (100.0)
지정 사업체	93 (38.4)	78 (32.2)	33 (13.6)	37 (15.3)	1 (0.4)	242 (100.0)
지정율	34.3	26.6	55.0	38.9	20.0	33.4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 신청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은 혼합형이 45%(310개)로 가장 많으며, 일자리제공형이 39.9%(275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9.6%(66개), 기타형이 5.5%(38개)임. 지정 사업체의 경우 혼합형이 44.4%(104개), 일자리제공형이 41.5%(97개),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8.5%(20개), 기타형이 5.6%(13개)임.

〈표 4〉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 유형

(단위 : 개(%), %)

구 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 계
신청 사업체	275 (39.9)	66 (9.6)	310 (45.0)	38 (5.5)	689 (100.0)
지정 사업체	97 (41.5)	20 (8.5)	104 (44.4)	13 (5.6)	234 (100.0)
지정율	35.3	30.3	33.5	34.2	34.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체 신청서

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52개 사업체 중에서 중도 탈락 7개 사업체와 연락처가 불분명한 10개 사업체를 제외한 2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중 166개(응답율 70.6%)사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음. 설문지는 사업체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작성하도록 하였음.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및 교육서비스 업종이 많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는 문화·예술분야가 21.8%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교육서비스업이 19.4%를 차지하고 있음. 친환경 및 일반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12.2%, 외식 및 식품제조판매업이 12.1%임. 돌봄서비스업(간병·보육·보건의료)은 10.8%,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은 9.7%, 재활용·환경 분야는 6.7%임. 서울은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분야 및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5>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비중

업종	개(%)
간병·생활보조서비스	7 (4.2)
보육서비스	6 (3.6)
교육서비스	32 (19.4)
보건의료서비스	5 (3.0)
문화·예술분야	36 (21.8)
관광분야	3 (1.8)
재활용 환경 분야	11 (6.7)
청소·차량 관리 서비스	1 (0.6)
집수리 및 조경 관리	6 (3.6)
택배·배달서비스	9 (5.5)
외식사업·식품제조 분야	20 (12.1)
친환경 제품 생산 제조업	9 (5.5)
일반물품 생산 제조업	11 (6.7)
기타	9 (5.5)
합계	165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표 6>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

업종	전국 개(%)	서울 개(%)
교육	14 (4.4)	7 (9.6)
보건	7 (2.2)	1 (1.4)
사회복지	59 (18.5)	7 (9.6)
환경	57 (17.9)	5 (6.8)
문화·예술 관광·운동	23 (7.2)	14 (19.2)
보육	16 (5.0)	1 (1.4)
산림보존(관리)	1 (0.3)	0 (0.0)
간병·가사 지원	40 (12.5)	11 (15.1)
기타	102 (32.0)	27 (37.0)
합계	319(100.0)	73(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 근로자의 유형이 다양함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아 고용한 근로자수는 사업체당 평균 10.3명임.
- 전체 근로자 중에서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비중은 75.7%이며, 시간제근로자(4대보험 미가입)가 16.8%, 자원봉사자가 7.5%를 차지함.

<표 7>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유형별 비중

구분	전체 사업체수 (개)	평균 근로자수 (명)	총근로자수 (명(%))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62	14.7	2,388 (75.7)
시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47	11.3	530 (16.8)
자원봉사자	24	9.9	237 (7.5)
합계	-	-	3,155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 사업체당 4대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평균 14.7명이며, 중위값은 9.5명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약 50%가 10명 미만의 근로자(4대보험 가입)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29.0%로 사업체당 시간제 근로자수는 평균 11.3명임.
- 자원봉사자가 있는 사업체는 14.8%이며, 사업체당 평균 9.9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음.

○ 4대보험 가입근로자는 일반서비스업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자원봉사자는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음.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28.9%는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에서 일하고 있으며, 17.5%는 교육서비스업, 14.2%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10.6%는 돌봄서비스업(간병·보육·보건의료)에서 일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의 53.4%가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음. 자원봉사자의 경우 30.4%가 돌봄서비스업(간병·보육·보건의료)에서 일하며, 교육서비스업과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각각 22.8%, 21.5%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음.

<표 8>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업종별 종사자 비중

(단위 : 명, 명(%))

업종	4대보험가입 근로자		4대보험미가입 시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평균	인원 수	평균	인원 수	평균	인원 수
간병·보육·보건의료서비스	14.1	253 (10.6)	8.7	52 (9.8)	36.0	72 (30.4)
교육서비스	13.1	418 (17.5)	40.4	283 (53.4)	9.0	54 (22.8)
문화·예술·관광 분야	8.7	340 (14.2)	3.5	38 (7.2)	8.5	51 (21.5)
재활용 환경 분야	13.9	139 (5.8)	6.0	12 (2.3)	10.0	10 (4.2)
청소·차량·집수리·조경 관리, 택배·배달서비스	43.2	691 (28.9)	11.1	78 (14.7)	8.0	16 (6.8)
외식사업·식품제조 분야	11.1	210 (8.8)	6.8	34 (6.4)	3.0	12 (5.1)
제조업	9.2	175 (7.3)	4.5	27 (5.1)	8.0	16 (6.8)
기타	18.0	162 (6.8)	2.0	6 (1.1)	6.0	6 (2.5)
합계	14.7	2,388 (100.0)	11.3	530 (100.0)	9.9	237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 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이며, 중고령자와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음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70.6%가 취약계층에 속함. 취약계층 유형별 근로자 비중은 중고령자가 35.2%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21.2%, 경력단절 여성 12.9%, 저소득층 11.1% 순임.

〈표 9〉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근로자 고용 비중
(단위 : %, 명, 명(%))

구 분	고용사업체 비율	평균 고용인원	고용인원 비중
저 소 득 층	30.7	3.7	187 (11.1)
중 고 령 자	49.4	7.2	594 (35.2)
장 애 인	31.3	6.9	357 (21.2)
성매매 피해자	1.2	3.0	6 (0.4)
장기 실업자	22.9	2.7	103 (6.1)
여 성 가 장	12.7	1.7	36 (2.1)
경력단절 여성	13.9	9.5	218 (12.9)
새 터 민	4.8	4.8	38 (2.3)
이 주 민	4.2	2.7	19 (1.1)
기 타	17.5	4.4	128 (7.6)
없 음	7.8	-	-
합 계	-	-	1,686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주 : 고용사업체 비율은 중복응답이 포함된 수치임

- 사업체간 매출액·매출총이익·영업이익의 편차가 큼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2010년 7-9월의 3개월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8,085만원, 중위값은 2,700만원으로 나타나, 3개월간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체가 절반을 넘고 있음. 매출액 최소값은 36만원, 최대값은 29억 6,570만원으로 사업체간 편차가 매우 큼.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으로 평균 2억 7,827만원이며, 매출액 규모가 가장 적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평균 매출액이 3,559만원임.
- 사업체당 매출 총이익(총매출액-매출원가)은 평균 3,051만원이며, 중위값은 1,193만원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약 절반이 1,000만원 수준의 매출 총이익에 머물고 있

음. 매출 총이익 최소값은 -4,308만원, 최대값은 3억 9,745만원으로 매출 총이익의 편차도 큼.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큰 업종은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으로 평균 6,914만원이며, 매출 총이익이 가장 적은 업종은 문화·예술·관광분야로 사업체당 평균 매출 총이익이 1,883만원임.

- 사업체당 영업이익(매출 총이익-급여·상여금-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은 평균 -635만원으로 적자로 나타남. 영업이익이 흑자인 업종은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과 재활용·환경 분야로 평균 영업이익이 각각 8,700만원, 195만원임. 영업이익 적자가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2,620만원으로 나타남.

<표 1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수입

구 분	사업체수(개)	평균 (천원)	중위값 (천원)	최소값 (천원)	최대값 (천원)
매 출 액	127	80,847	27,001	360	2,965,700
매출총이익	94	30,511	11,930	-43,084	397,452
영업 이익	95	-6,346	2,122	-208,937	92,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 영업외 수입 구조가 다양하며, 공공 지원금 비중이 87.6%를 차지함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외 수입 항목은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중앙·서울시·자치구의 지원금, 모법인지원금, 기업지원금, 개인 및 기타 후원금, 이자수입, 기타 등으로 영업외 수입 구조가 다양함.

<표 1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외수입 항목별 비중

구 분	영업외수입 사업체수 (개(%))	평균영업수입 (천원)	총 영업외수입 (천원(%))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121 (72.9)	29,490	3,568,242 (67.6)
정 부	42 (25.3)	25,102	1,054,271 (20.0)
모법인 지원금	19 (11.4)	9,662	183,587 (3.5)
기 업 지원금	7 (4.2)	15,851	110,960 (2.1)
개인 및 기타 후원금	26 (15.7)	8,321	216,348 (4.1)
이 자 수 입	27 (16.3)	273	7,377 (0.1)
기 타	15 (9.0)	9,235	138,528 (2.6)
합 계	-	-	5,280,714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 총 영업외 수입에서 서울시 인건비 지원금 비중이 67.6%로 가장 높고, 중앙·서울시·자치구 지원금 비중이 20.0%로 나타나 영업외 수입에서 공공 지원금 비중이 87.6%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 개인 및 기타 후원금 비중이 4.1%, 모법인 지원금 비중이 3.5%, 기업 지원금 비중이 2.1%로 나타남.

○ 지출항목에서 급여·상여금 비중이 크며, 특히 일반서비스업 및 돌봄 서비스업의 급여·상여금 지출비중이 매우 높음.

- 총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출항목은 급여·상여금으로 총지출의 59.9%를 차지함. 일반서비스업(청소·집수리·배달)의 경우 총지출에서 급여·상여금 지출비중이 80.8%이며, 돌봄서비스업(간병·보육·보건의료)의 급여·상여금 지출비중은 78.4%임.

<표 12>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별 지출액 및 항목별 지출비중

(단위 : 천원, %, 천원(%))

구분	평균액	매출원가	급여와 상여금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비용	기타	총지출액
간 병·보 육·보건의료서비스	54,443	4.9	78.4	13.5	0.6	2.7	871,087 (100.0)
교육 서비스	77,364	26.4	46.2	27.4	0.0	0.0	1,547,285 (100.0)
문화·예술·관광 분야	68,566	40.1	43.7	11.8	0.1	3.7	2,125,548 (100.0)
재활용 환경 분야	104,411	20.6	56.1	19.4	0.6	3.4	1,044,111 (100.0)
청소·차량·집수리 조경관리·배달서비스	293,305	3.4	80.8	15.0	0.4	0.4	3,812,962 (100.0)
외식사업, 식품제조 분야	46,358	26.6	62.2	9.9	0.0	1.3	695,365 (100.0)
제조업	115,396	28.1	48.3	23.3	0.2	0.2	1,846,331 (100.0)
기타	100,611	44.6	41.8	10.2	0.2	3.3	905,500 (100.0)
합계	98,832	21.4	59.9	16.8	0.3	1.5	12,848,189 (100.0)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 총지출에서 매출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로 매출원가 비중이 40.1%이며, 제조업의 매출원가 비중은 28.1%, 외식·식품제조판매업은 26.6%, 교육서비스업은 26.4%임.

II.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1. 예비사회적기업의 희망 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및 운영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47.9%가 희망 지원사업 1순위로 인건비 지원을 들고 있으며, 22.4%는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을, 7.3%는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6.7%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희망 지원사업 1순위와 필요도

(단위 : 개(%), 점)

구 분	1순위	필요도
인건비 지원	79 (47.9)	4.75
대표자 및 관리자 전문경영지원	4 (2.4)	3.74
사회적기업 정신 및 운영 이해 교육지원	1 (0.6)	3.65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지원	3 (1.8)	3.88
단기 및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7 (4.2)	3.89
노무관리 지원	0 (0.0)	3.61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2 (1.2)	3.91
업종 관련 전문기술 지원	1 (0.6)	3.60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	37 (22.4)	4.60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12 (7.3)	4.21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5 (3.0)	3.92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11 (6.7)	4.37
홍보 지원	2 (1.2)	4.43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0 (0.0)	3.09
기타	1 (0.6)	-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주 : '매우 필요하지 않음' 1점, '약간 필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필요' 4점, '매우 필요' 5점.

- 외부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지원 창구 단일화와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외부환경 조성사업으로 21.1%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 서비스’ 를 1순위로 들고 있음.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와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 을 1순위로 드는 경우도 각각 15.7%를 차지함.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양성’ 을 1순위로 든 경우도 13.3%임.

〈표 14〉 외부환경 조성사업 1순위와 중요도

(단위 : 개(%), 점)

구 분	1순위	중요도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헌신성을 가진 인재 양성	22 (13.3)	4.21
민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26 (15.7)	4.4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창구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서비스	35 (21.1)	4.44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12 (7.2)	4.36
서울시, 자치구, 고용노동부와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네트워크	23 (13.9)	4.44
예비사회적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	3 (1.8)	3.8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 민간지원기관의 전문성	5 (3.0)	4.13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자본시장 형성	26 (15.7)	4.25
국내·외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및 상호교류 전문웹사이트	2 (1.2)	3.87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윤리적 소비 확대	11 (6.6)	4.38

자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문조사

주 : '매우 필요하지 않음' 1점, '약간 필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필요' 4점, '매우 필요' 5점.

2.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방안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및 관리 전략의 필요성
- 서울시에 2010년 8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약 400여개가 있으며, 서울시는 2014년까지 1,80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초기단계에서 인건비 지원은 단기간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효한 지원방식이었음. 그러나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은 최장 2년이며, 2년차에는 분기별로 인건비 지원을 축소시켜 나가게 됨. 따라서 인건비 지원 중단 이후에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 및 관리전략이 필요함. 즉 사업체의 업종, 발전단계, 사회적 목적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지원방식의 다양화

- 서울시의 2010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8억 5,85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 지원 예산이 9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 인건비 지원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원 이외에 작업장 지원, 사업개발비 및 운영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공모 및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소셜벤처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및 관리자의 교육 지원

- 사회적기업은 사업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런 점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운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으로 단기간에 급속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회적 목적에 공감한 근로자로 구성되기보다 고용중개센터를 통한 근로자 고용이 많음. 이는 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사업체의 지속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70%는 중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67.3%는 비영리기관이며, 모법인도 71.8%가 비영리기관임. 사업체의 관리자들도 비영리기관에서 주로 일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리자가 이익 창출에 필요한 기업경영 분야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줌.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관리자급 대상의 경영교육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적정성 제고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79.5%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을 받았으나, 경영컨설팅 만족도 수준은 보통에 약간 못 미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근로자 구성에서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사업체임. 복합적 구조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컨설팅은 다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업종도 주류 경영 컨설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영세한 규모의 돌봄서비스업(보육·간병·보건의료)과 청소·차량관리·집수리·택배, 재활용·환경,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체가 많음. (예비)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이들 사업체에 적정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종합적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된 기관 및 컨설턴트 양성은 미흡함. 이 단계에서는 경영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업종별, 근로자 특성별 거점지원기관을 정하고, 이들 거점지원기관의 협력네트워크로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SDI**

참고문헌

- 신경희(201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